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가족영역 지원 사업 인식 및 가족생활주기별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필요도에 관한 연구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Staff's Perceptions on Family Programs and Needs of Multicultural Family Programs based on the Family Life Cycle

전미경(Mikyung Jun)^{1*}, 강복정(Bogjeong Kang)², 손서희(Seohee Son)³, 이은주(Eunjoo Lee)¹

¹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²Management & Planning Bureau,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³Departmen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MFSC) have provided five program areas including family, gender equality, human rights, social integration, and counseling since 2015.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MFSC staff's perceptions of the family programs and program needs for multicultural famili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se programs. In this study, we aim to explore the staff's perceptions of the family programs and to assess multicultural family program needs based on the family life cycle. A total of 130 MFSC staff were recruited through 128 MFSCs across Korea. Descriptive statistics were conducted for data analysis. Our findings revealed that MFSC staff have increasingly recognized that their target audiences are not only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but also foreign workers' families and families from North Korea. In addition, the MFSC staff identified the importance of family programs instead of only programs for individual family members and multicultural families' different program needs based on their family life cycle. Contrary to the positive perception of the family programs, they described challenges of the family programs including a shortage of funds, difficulty recruiting family member combinations (e.g., couples, parent-child) for family programs, a lack of a program manual, and a heavy workload.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into the family programs including their development and delivery.

▲주제어(Key words) : 다문화가족지원센터(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Multicultural Family Suppoer Center staff),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

I. 서론

전 지구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화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다문화사회를 도래하도록 만들었다. 단일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도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Korea Migrant Human Rights Center, 2005),

1990년대부터는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 되었다(E. Lee, 2015; Bélanger, Lee, & Wang, 2008).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가족 현상에서 유례가 없던 일이기에, 이들 가족이 대내적·대외적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필요로 한다. 즉 다문화사회로의 도입은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제정과 시행을 요구한다.

* Corresponding Author : Mikyung Ju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30, Pildong-ro-1-gil, Jung-gu, Seoul, 04620, Republic of Korea, Tel: 02-2260-3889, Fax: 02-2265-1170, E-mail: mkjun@dongguk.edu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근간이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3월 제정, 2008년 9월 시행)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0년대 중반부터 실시되었다. 즉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초기 형태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지역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등의 국가기관 및 민간 기관을 통해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및 시행을 기점으로 전국 시군구별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수행 기관인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2015년 1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에 총 217개소가 운영 중이다(Danuri, 2015).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사업은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함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M. Chin, J. Lee, S. Lee, S. Son, & M. Sung, 20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확정하는 다문화가족정책 기본 계획에 따르는 하향식 전달체계로 진행된다. 2010년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 정책(2010년 ~ 2012년) 기본 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국제결혼중개관리 및 입국 전 검증 시스템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제고였다. 이후 2012년 수립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2013년 ~ 2017년) 기본 계획은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추진체계의 정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 계획을 지원 대상 차원에서 살펴보면, 초기에는 결혼이민자 및 자녀 중심의 개별 대상 지원이었지만 이후 대상을 가족구성원으로 확장하여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형태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원 방식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는데, 다문화가족이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상담 내용 중 개인의 일상생활 또는 국제결혼 피해 사례보다 가족문제 유형인 부부갈등(11.8%), 이혼문제(11.2%), 가정폭력(10.6%)이 현저히 높은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015).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문제 유형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적응 및 다문화가

족의 가족생활 적응은 결혼이주여성이 혼자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이기 보다 전 가족구성원이 함께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G. Chung & J. Yoo, 2013). 또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생활주기는 가족형성이나 자녀양육기를 지나 자녀독립기를 앞 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은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만 18세 이하 다문화가족자녀는 2006년 2만 5천여 명에서 2015년 20만 8천여 명으로 지난 10년간 8 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학령기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Ministry of the Interior, 2015). 이 같은 가족생활주기의 다양성은 초기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중심을 둔 기본 과제의 변경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외부 조건이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후 적응에 필요한 사업 뿐 아니라 가족생활주기에의 적응 등 가족 기능의 과부하 및 역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의 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주요 의제는 가족생활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며, 이러한 접근은 가족생활주기별 가족의 발달과 사회화 과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사실 다문화가족 대상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은 2008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8), 2015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사업 방향성 변화를 꾀하고자 기존의 교육, 문화, 상담 지원 영역에서 벗어나 가족을 하나의 영역으로 크게 범주화하고 이어서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의 5개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015). 현재 각 영역의 프로그램 매뉴얼은 개발 및 배포된 상태로, 가족영역의 프로그램 매뉴얼은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 부응하여 가족생활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은 사업의 방향성과 달성해야 할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프로그램 매뉴얼이란 대상 관련 선행연구와 조사 내용을 조합하고 기술통계 처리하여 정련된 형태로 구성되므로, 대상 집단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만 모든 집단에 대응시키기 어렵다는一面도 존재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사회에 결혼이주가 본격화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인종, 출신국, 연령, 결혼기간, 자녀유무, 초혼 또는 재혼 등의 결혼 형태, 계층 등이 매우 다양해졌고, 결혼이주가 아닌 형태의 다문화가족 역시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은 가족마다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 역시 거주 지역별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 다양성 정도는 점점 커져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별, 생애주기, 가족생활주기 등 개별 가족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가족영역 사업 수행자의 인식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한 세부 지원 내용은 대부분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 의거한 하향식 정책 전달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하향식 전달체계 형식은 한국 다문화정책의 압축적 성장을 가져왔지만 중앙부처 중심의 관주도적 성장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K. Yang, 2015). 따라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가족생활주기별 가족영역 사업 수행을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사업 관련 인식 및 프로그램 욕구를 살펴보고 참조하는 것이 정책 수행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상담, 사례 관리,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등의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H. Kim, H. Lee, S. Park, & S. Park, 2012), 이들의 직무역량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성패 및 서비스 질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게 진행되어 왔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와 관련한 주요 연구 흐름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연구 주제는 직무성과나 사업품질(M. Hwang, 2015; S. Kang & J. Park, 2015; S. Kim & S. Hong, 2010; W. Mok, 2012; J. Sse, 2014; Y. Song, 2012), 근무여건이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S. Jung, 2011; J. Kim, 2013)이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료관계이지만 가장 낮은 요인은 보수 수준이며(W. Mok, 2012), 센터의 리더라 할 수 있는 관리직 종사자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높지 않은 반면 센터 내 종사자의 경우 근무여건이, 센터 외 종사자는 역할갈등의 조정 및 신분안정이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 Jung, 2011).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센터 운영과 프로그램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보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다(J. Sse, 20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운영을 근거이론으로 접근한 P. Park and J. Kim (2013)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운용에 있어 중심현상은 인력부족 문제로,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 종사자의 이직, 급여에 대한 불만족, 인력활용의 예산상 문제 범주 등이 인과적 조건으로써 인력부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에 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규모로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양성과 역사성을 고려할 때 이들에 관한 연구는 특정 주제에 한정된 연구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는 다문화가족의 전문가이자 사업운영 및 서비스 제공의 핵심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관련 선행연구는 프로그램의 인식과 필요도에 관한 선행 연구가 매우 미흡할 뿐 아니라 특히 현행 다문화가족지원의 중요 의제인 가족생활주기별 다문화 가족영역 사업에 대한 현장 종사자의 필요도와 관련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의 프로그램 요구도를 종사자를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들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이용자들의 미충족 욕구(unmet needs)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K. S. Harlow & M. J. Turner, 1993).

따라서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족영역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가족생활주기별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필요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다양성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하여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은 가족영역이 핵심적 사업이지만 언어발달이나 이중언어환경조성 사업 등 언어중심의 사업인 경우 가족영역 사업에 대한 실질적 경험이 부재할 수 있기에,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가족영역' 사업을 진행하는 종사자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가족영역 사업을 진행하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다문화 가족영역 사업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수행과 후속 사업 계획을 위한 정책 수립에 참조 자료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가족영역 지원 사업 관련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가족생활주기별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필요도 인식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영역 지원 사업의 이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영역 지원 사업 정책의 출발점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 증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부적응 심화,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다문화 정책 등의 문제점 등을 인식하여 수립된 2006년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이라 할 수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6). 당시의 정책과제에는 탈법적 결혼증개방지 및 당사자 보호, 안정적인 체류 지원,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및 지원,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 책임자 교육, 추진체계 구축 등이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정책과 관련된 가족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총괄하게 되었으며, 정책과제 중 추진체계 구축에 의거하여 결혼이민자 집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게 되었다. 이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에 근거를 두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영역은 2015년부터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는 이 논고의 주제인 가족영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을 살펴보기자 하는데, 이를 통해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가족영역 지원 사업 현황 및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초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한 다문화가족 사업 및 이와 관련하여 연간 발행되는 사업 안내 지침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문화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의 이동 및 중앙센터에서 다누리로의 홈페이지 개편 등으로 기존 다문화사업 안내 지침 정보가 다소 누락되어 있어 초기의 지침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 지침에 대한 정보의 경우, 다누리에서는 2011년도 지침부터, 여성가족부에서는 2009년도 지침부터 제공하고 있어 여기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기자 한다.

다문화가족 사업 안내 지침(2009 ~ 2015)이 제공되고 있는 시점부터 살펴보면, 2009년도의 가족영역 사업은 가족교육 사업 명칭으로 운영하였고 세부 내용으로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배우자교육, 자녀지원 사업이 포함된다. 2010년에는 가족영역 사업은 가족의사소통 및 관계 향상,

국제결혼의 특징 및 가정경제 설계, 배우자·자녀·시부모 대상 가족의 의미와 역할, 부모-자녀 관계 및 자궁심 향상이 있다. 2011년도 가족영역 필수사업은 가족통합교육인 다문화 이해 교육, 법률과 인권교육, 결혼과 가족의 이해, 한국사회 적응 교육, 가족의사소통, 가족관계 향상, 시부모가족의 의미와 역할, 배우자 및 부부교육, 자녀지원교육과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이 있다. 자조모임은 결혼이민자 모임과 가족모임으로 구분된다. 2012년도 가족영역 필수사업은 가족통합교육인 가족의사소통, 배우자교육, 아버지 교육,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를 진행하고 다문화이해교육인 다문화이해 및 인식, 법률과 인권 교육을 진행하였다. 2013년도 가족영역 필수사업은 가족 의사소통, 가족관계 향상, 부모 및 배우자교육, 아버지교육, 다문화 이해 및 인식, 법률과 인권,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방문 자녀생활서비스가 있다. 2014년도 가족영역 필수사업은 가족의사소통, 가족관계 향상, 부부 및 배우자교육, 아버지교육, 다문화 이해 및 인식교육, 법률과 인권교육이다. 2015년도부터는 가족영역을 새롭게 구분하고 있는데, 필수사업으로는 이중 언어 환경조성프로그램인 부모역할, 부모·자녀 상호작용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 필수사업에 포함되었던 가족의사소통, 가족관계 향상, 결혼과 가족의 이해, 아버지교육 등은 선택사업으로 영역이 바뀌었다.

가족영역 지원 사업의 현황 및 변화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기존에 가족영역 필수사업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오던 전반적 가족관계 영역이 2015년에는 선택사업으로 바뀌고 부모·자녀영역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또 가족영역 사업이었던 배우자 교육, 한국사회 적응 교육, 법률과 인권 교육은 각각 성평등, 사회통합, 인권영역으로 분리되었다. 이렇듯 가족영역 사업의 주요 교육 내용은 해마다 다소의 변화는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핵심적 사업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법률적, 제도적 전개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비판적 관점을 제기하였다. 먼저 초기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 근간이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란 수사를 붙인 결혼이민자지원법에 불과하다는 평가(D. Seol, 2010)와 함께, 지원 사업 대부분이 한국어 교육 및 결혼이민자의 조기 적응 지원에 중복 및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 섞인 평가가 많았다(S. Hong & S. Kim, 2009; Y. Kim, 2011; K. Son, 2010; G. Yang, 2015). 또 결혼이민자 중심이라는 지원 대상의 한계성과 함께 사업의 유사성 및 단기성도 지적되었다(S. Kim & S. Hong, 2010). 더불어서 일관성 없는 다문화정책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족에게서 발생하는 문제의 본질적

해결 및 통합 지원이 아닌 성과위주의 사업이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Y. Park, 2009). 이러한 평가들은 초기 다문화가족 사업이 가족 지원을 위한 통합적 접근보다는 결혼이민자 지원 중심의 개별적 사업 위주로 편성 및 운영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2. 가족생활주기별 다문화가족 가족영역 지원 사업의 이해

가족은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와 가족공동체로서의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하면서 정체하지 않고 발달 및 변화해야하는 과정 성취적 집단이다. 또 가족은 체계론적 관점에서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하위체계와의 관계로 이루어진 총체적 정서체계이기도 하다(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2002). 따라서 가족에 대한 정책은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 가족생활주기, 가족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맥락적 특징 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최근 다문화가족의 개별적 가족상황의 다양성이 커짐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생활주기별 지원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주기가 두드러지게 부각된 것은 2008년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이 공표되면서부터이다. 그 당시 생애주기별 분류는 결혼준비기, 가족형성기,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가족역량강화기, 가족해체기로 구분하고, 전 단계에 걸쳐서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준비기에는 결혼중개탈법행위 방지 및 사전 교육 지원, 가족형성기에는 결혼이민자 조기 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 자녀양육기에는 임신·출산·양육 지원, 자녀교육기에는 다문화아동·청소년 학습 및 역량 강화 지원, 가족역량강화기에는 결혼이민자의 경제 및 사회적 자립 역량강화, 가족해체시에는 자녀와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8). 이러한 접근법은 다문화 가족의 개별적·지역적으로 다양화된 특성을 수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실제적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단계,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주기,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가족생활주기가 혼재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생애주기별 접근은 형태적으로는 가족생활주기의 아우름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개별 대상인 결혼이민자와 아동에 집중되어 있어서 가족체계를 포괄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가족생활주기 구분과 지원은 다소 변화가 있었다. 앞서의 다문화가족 사업 안내 지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한 가족영역 사업도 주제와 대상을 가족생활주기와 연계하지 못하고 가족의사소통, 가족관계 향상, 부부교육, 시부모 가족의 의미와 역할, 아버지교육 등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시도하고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2015)는 2014년에 개발한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패키지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생활주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족영역 프로그램을 첫 자녀를 중심으로 4단계(결혼 ~ 첫 자녀가 영아기인 가족, 첫 자녀가 유아기인 가족, 첫 자녀가 아동기인 가족, 첫 자녀가 청소년기 이상인 가족)로 구분하여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구분은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지만, 가족생활의 장기적,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영역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영역 사업에 대한 인식 및 가족생활주기별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필요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는 언어발달지도사, 가족생활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 통번역지도사, 사례관리사, 이중언어코치 등의 종사자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를 가족영역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다양성 및 종사자 근무형태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특정 종사는 이 연구의 초점인 가족영역 사업에 대한 실질적 경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의 내용은 통계적 분석 과정을 거쳐서 익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법 13조에 의거하여 엄격한 비밀 보장 및 설문 참여에 강제성이 없음을 공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8.5%), 여성(91.5%)으로 여성 응답자 비율이 현저히 높았고, 연령대는 20대(40.8%), 40대(27.7%), 30대(26.2%), 50대 이상(5.4%) 순이다. 학력은 ‘대학졸업’과 ‘대학원 재학 및 졸업 이상’이 각각 74.6%과 25.4%이다. 근무 년차는 1년 ~ 2년차와 3년차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요건 중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rvey Participants

(N=130)

Characteristics		n(%)	Characteristics		n(%)		
Gender	Male	11(8.5)	Years of Work	1~2	53(40.8)		
	Female	119(91.5)		Over 3	77(59.2)		
Age	Under 30	53(40.8)	Region	Total	Urban-rural complex		
	31~39	34(26.2)		Seoul	16(12.3) 0(0.0)		
	40~49	36(27.7)		Gyeonggi province	15(11.5) 0(0.0)		
Education	Over 50	7(5.4)	Type of Region	Metropolitan city (Busan, Daegu, etc)	28(21.5) 2(7.1)		
	College	97(74.6)		Jeolla province	17(13.1) 4(23.5)		
	Graduate above	33(25.4)		Gyeongsang province	34(26.2) 12(35.3)		
Major	Family study	12(9.2)	Type of Region	Gangwon province	8(6.2) 2(25.0)		
	Social welfare	107(82.3)		Chungcheong province	11(8.5) 5(45.4)		
	Other	11(8.5)		Jeju province	1(0.8) 1(100.0)		
Certificate (Multiple responses, n=309)	Healthy Family Specialist	81(62.3)	Urban	104(80.0)			
	Social Worker	124(95.4)		Urban-rural complex			
	Lifelong Learning Educator	7(2.3)					
	Childcare Center Teacher	43(13.9)					
	Other	54(17.5)					

3년 이상인 실무 경력자를 팀장으로 구분'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최종 전공은 사회복지학(82.3%), 가정학(9.2%), 기타(8.5%) 순이며, 기타에는 교육학, 아동가족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등이 있었다. 종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95.4%)를 응답자 대부분 가지고 있었고, 이어서 건강가정사(62.3%), 기타(17.5%), 보육교사(13.9%), 평생교육사(2.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자격증은 전문상담사, 유치원 2급 정교사, 미술치료사, 다문화가족상담사, 중등교원 자격 등으로,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근무 년차는 3년차 이상(59.2%), 1년 ~ 2년차(40.8%)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지역은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경상도(26.2%), 광역시(21.5%), 전라도(13.1%), 서울(12.3%), 경기도(11.5%), 충청도(8.5%), 강원도(6.2%), 제주도(0.8%)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는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를 포함한다. 행정구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치한 지역 유형이 도시와 농촌 복합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곳은 제주도(100.0%), 충청도(45.4%), 경상도(35.3%), 강원도(25.0%), 전라도(23.5%), 광역시(7.1%)이며 서울·경기 지역은 도농복합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센

터 전체의 지역 유형은 도시형(80.0%), 도농복합형(20.0%)으로 도시형이 도농복합형보다 더 많았다.

2. 연구도구

조사를 위한 문항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문화 가족영역 사업 인식,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필요도로 구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Table 2>와 같다. 종사자가 인식하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필요도 문항은 다문화 가족 관련 선행 연구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면접 조사,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를 다수 수행한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문항은 가족학 전공 교수 2인의 감수를 통해서 내용 타당도를 구하였다.

연구도구 구성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영역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선행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족영역 사업은 무엇인지를 찾아본 후 1차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4명을 대상으로 사전 면접조사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가족 프로그램 사업 영역과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사업

Table 2. Survey Questions

Type of Questions	Contents	Number of Questions (39)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Gender, Age, Education, Region, Major, Certification (multiple responses), Years of work	8
Perceptions on Multicultural Family Programs	Target popul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multiple responses)	1
	Perceptions on program management of family program	7
Needs of Multicultural Family Programs	Priority of target population for multicultural family program	1
	Needs of family programs based on the family life cycle	22

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의 필요도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세부 영역은 총 6개 영역, 즉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원가족관계, 문화이해, 가정경영, 지역사회 참여영역으로 구분된다. 영역별 내용을 살펴보면, 부부관계 영역은 부부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부부 성에 대한 이해, 부부 역할 조화, 부부 친밀감 증진이며, 부모-자녀 영역은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아버지 양육 참여, 자녀 진로 지도, 자녀 발달 단계 이해, 자녀 학교생활 이해이다. 원가족관계 영역은 결혼이민여성과 시가구 성원과의 관계, 원가족과의 긍정적 문화, 남편과 처가구성원과의 관계이며, 문화이해 영역은 배우자 나라 문화 및 언어 이해, 결혼이민여성 문화에 대한 시가구성원의 이해, 다문화 이해, 다문화 강점 찾기로 구분되며, 가정경영 영역은 생애목표설계, 재무관리, 여가관리, 배우자 생애주기 및 발달과업 이해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참여 영역은 지역사회활동(봉사활동), 지역사회 관계맺기(학부모 모임 참여 등)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척도는 5점 척도이며, 각 프로그램의 필요정도에 대한 응답은 ‘전혀 필요하지 않음’ 1점에서부터 ‘매우 필요함’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생활주기는 4단계(결혼 ~ 첫 자녀가 영아기인 가족, 첫 자녀가 유아기 자녀인 가족, 첫 자녀가 아동기 자녀인 가족, 첫 자녀가 청소년기 이상인 가족)로 나누었으며, 이것은 한국건강가정진흥의 가족영역 프로그램 매뉴얼에서 나눈 단계를 참조한 것이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방법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은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활용하였고, 사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된다. 사전조사는 2015년 3월 23일 ~ 29일까지 서울·경기에 소재한 센터를 중심으로 15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조사는 전국 217개

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영역 담당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5년 4월 13일 ~ 4월 2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본조사에 앞서 협조 우편 메일 발송 및 전화통화를 통해 연구의 취지, 익명성의 보장, 연구의 활용 등을 안내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128개소에서 130명(2개소 각 2명 응답)이 응답하였고 이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한편 자료분석 방법은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중응답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별 응답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행정구역과 세부 지역별 차이 분석을 위해서 교차분석 및 일원배치분산분석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근무 년차 별 및 지역 유형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다문화 가족영역 사업 인식

1) 다문화가족지원 대상 인식

가족영역 사업 종사자가 인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대상자는 결혼이민자가족(100%), 외국인근로자 가족(61.5%), 새터민가족(54.6%), 유학생가족(38.5%), 기타 가족(1.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가족에는 결혼이민자의 원가족, 외국인 주민, 친인척 등이 포함된다. 근무 년차별 지원 대상 인식도 전체의 인식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영역 사업 종사자는 결혼이민자가족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기타 외국인가족을 위한 가족영역 지원 사업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행정구역별 지원 대상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 인식과 동일하게 결혼이민자가족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어서 외국인근로자가족, 새터민가족, 유학생가족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경기 지역

Table 3. Target Popul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Multiple Responses) (N=130)

Characteristics	Marriage Immigrant Family n(%)	Foreign Workers' Family n(%)	Families from North Korea n(%)	International Students' Family n(%)	Other Types of Family n(%)
Total	130(100)	80(61.5)	71(54.6)	50(38.5)	6(1.8)
Years of Work	1~2	53(100)	32(60.4)	30(56.6)	21(39.6)
	Over 3	77(100)	48(62.3)	41(53.2)	29(37.7)
Administrative District	Seoul and Gyeonggi	31(100)	25(80.6)	20(64.5)	15(48.4)
	Metropolitan city	28(100)	15(53.6)	13(46.4)	10(35.7)
	Other	71(100)	40(56.3)	38(53.5)	25(35.2)
Region	Seoul	16(100)	11(68.8)	8(50.0)	4(25.0)
	Gyeonggi province	15(100)	14(93.3)	12(80.0)	11(73.3)
	Metropolitan city	28(100)	15(53.6)	13(46.4)	10(35.7)
	Jeolla province	17(100)	11(64.7)	11(64.7)	5(29.4)
	Gyeongsang province	34(100)	18(52.9)	19(55.9)	11(32.4)
	Gangwon province	8(100)	4(50.0)	1(12.5)	3(37.5)
	Chungcheong province	11(100)	6(54.5)	6(54.5)	0(0.0)
Type of Region	Jeju province	1(100)	1(100)	1(100)	0(0.0)
	Urban	104(100)	65(62.5)	52(50.0)	39(37.5)
	Urban-rural complex	26(100)	15(57.7)	19(73.1)	11(42.3)

이 광역시나 기타 지방보다 외국인 근로자 가족에 대한 지원 인식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행정구역별 지원 대상 인식을 세부 지역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제주도는 지원 대상 모두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 외 특이할만한 점은 경기지역이 외국인근로자가족에 대한 지원 대상 인식이 다른 지역 대비 매우 높았고 새터민가족 및 유학생가족에 대한 지원 대상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경기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이 가장 많이 거주하며(Ministry of the Interior, 2015), 새터민가족도 행정구역 중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데 (Ministry of Unification, 2015),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함을 의미한다.

지역 유형별로 나타난 지원 대상 인식은 도시형이 도농복합형보다 외국인근로자가족에 대한 지원 대상 인식이 다소 높으나 큰 차이는 아니며, 새터민가족에 대해서는 도농복합형이 도시형보다 지원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조금 더 높았다. 세부 내용은 <Table 3>과 같다.

2) 다문화 가족영역 사업 운영에 대한 인식

다문화 가족영역 사업 운영에 대한 인식은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한 사업 필요'(M=4.12)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

고, 이어서 '사업비 부족'(M=3.94), '가족단위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M=3.89), '가족사업 매뉴얼이 없거나 부족'(M=3.88), '업무량이 많아서 가족영역 사업 집중의 어려움'(M=3.78), '전문 강사 부족'(M=3.71) 순으로 나타났고 '가족사업보다 이민자 적응이 우선'(M=2.85)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았다(응답 범위: 1-5). 이는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가족영역 종사자는 결혼이민자 개인의 적응보다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한 가족단위 사업 운영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가족영역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부족, 가족단위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 매뉴얼 부족, 업무량 과다로 인한 가족사업 수행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사자의 근무 년차 별 인식에서 '사업비 부족' 항목은 3년차 이상이 1년 ~ 2년차 보다 가족영역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더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외 항목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행정구역별 다문화 가족영역 사업 운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기타 지방 지역이 서울·경기지역과 광역시보다 '가족단위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항목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행정구역의 세부 지역별로 다문화가족 사업 운영에 대한 인식에서도 '가족단위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 항목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가족단위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Table 4. Perceptions on Program Management of Family Program (N=130)

Characteristics	Difficulty Recruiting Family Member Combination	Lack of Program Manual	Heavy Workload	Shortage of Funds	Lack of Lecturers	Focus on Married Immigrant Women's Adjustment instead of Family Program	Program Development based on Family Life Cycle
Total (Range: 1-5)	3.89 (.909)	3.88 (.794)	3.78 (.856)	3.94 (.836)	3.71 (.902)	2.85 (1.028)	4.12 (.774)
Years of Work	1~2 M(SD)	3.91 (.861)	3.92 (.615)	3.60 (.743)	3.75 (.837)	3.66 (.831)	2.74 (1.003)
	Over 3 M(SD)	3.88 (.946)	3.86 (.899)	3.90 (.912)	4.06 (.817)	3.74 (.951)	2.94 (1.043)
	t	.138	.474	-1.934	-2.127*	-.495	-1.087
Administrative District	Seoul and Gyeonggi M(SD)	3.65 ^b (.877)	3.90 (.539)	3.68 (.748)	3.94 (.772)	3.61 (.803)	3.13 (1.088)
	Metropolitan city M(SD)	3.54 ^b (1.036)	3.89 (.994)	3.68 (.945)	4.21 (.787)	3.50 (1.072)	2.75 (1.005)
	Other M(SD)	4.14 ^a (.798)	3.87 (.809)	3.86 (.856)	3.83 (.868)	3.83 (.862)	2.77 (1.003)
Region	F	6.465**	.017	.719	2.167	1.592	1.476
	Seoul M(SD)	3.63 (.885)	4.06 (.574)	3.63 (.957)	3.94 (.929)	3.56 (.892)	2.88 (1.088)
	Gyeonggi M(SD)	3.67 (.900)	3.73 (.458)	3.73 (.458)	3.93 (.594)	3.67 (.724)	3.40 (1.056)
	Metropolitan city M(SD)	3.54 (1.036)	3.89 (.994)	3.68 (.945)	4.21 (.787)	3.50 (1.072)	2.75 (1.005)
	Jeolla M(SD)	4.35 (.931)	3.76 (.664)	3.59 (.870)	3.88 (.993)	3.76 (.831)	2.71 (1.213)
	Gyeongsang M(SD)	4.18 (.716)	3.85 (.821)	3.71 (.836)	3.68 (.806)	3.85 (.857)	2.85 (.989)
	Gangwon	4.13 (.835)	3.88 (.991)	4.50 (.535)	4.00 (.926)	4.38 (.744)	2.88 (.641)
	Chungcheong M(SD)	3.73 (.786)	4.18 (.874)	4.27 (.905)	4.10 (.876)	3.64 (.809)	2.64 (1.027)
	Jeju M(SD)	4.00 (.962)	3.00 (.790)	4.00 (.879)	4.00 (.835)	2.00 (.898)	2.00 (1.041)
Type of Region	F	2.331**	.721	.116	.447	.138	.540
	Urban M(SD)	3.88 (.962)	3.91 (.790)	3.75 (.879)	3.96 (.835)	3.76 (.898)	2.85 (1.041)
	Urban-rural complex M(SD)	3.96 (.662)	3.77 (.815)	3.88 (.766)	3.84 (.850)	3.50 (.906)	2.88 (.993)
	t	-.433	.828	-.716	.651	1.317	-.170
							.849

* p<.05, ** p<.01,

Table 5. Priority of Target Population for Multicultural Family Program (N=130)

Target Population		First n(%)	Second n(%)	Third n(%)
Total		75(57.7)	42(32.3)	10(7.7)
		44(33.8)	59(45.4)	23(17.7)
		5(3.8)	23(17.7)	87(66.9)
		6(4.6)	6(4.6)	10(7.7)
Total		130(100)	130(100)	130(100)

Table 6. Priority of Target Population for Multicultural Family Program based on Surve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30)

Characteristics	First n(%)				Second n(%)				Third n(%)			
	Married Couple	Parent- Child	Mother-in- law and Daughter- in-law	Other	Married Couple	Parent- Child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Other	Married Couple	Parent- Child	Mother-in- law and Daughter- in-law	Other
Years of Work	26 (49.1)	21 (39.6)	2 (3.8)	4 (7.5)	19 (35.8)	22 (41.7)	10 (18.8)	2 (3.7)	7 (13.2)	8 (15.2)	33 (62.2)	5 (9.4)
	49 (63.8)	23 (29.8)	3 (3.8)	2 (2.6)	23 (29.8)	37 (48.2)	13 (16.8)	4 (5.2)	3 (3.8)	15 (19.4)	54 (70.2)	5 (6.5)
$\chi^2=5.915$				$\chi^2=5.016$				$\chi^2=5.016$				
Administrative District	Seoul and Gyeonggi	14 (45.2)	14 (45.2)	0 (0.0)	3 (9.7)	11 (35.5)	13 (41.9)	4 (12.9)	3 (9.7)	4 (12.9)	3 (9.7)	20 (64.5)
	Metropolitan city	17 (60.7)	10 (35.7)	0 (0.0)	1 (3.6)	7 (25.0)	14 (50.0)	6 (21.4)	1 (3.6)	4 (14.3)	4 (14.3)	18 (64.3)
Region	Other	44 (62.0)	20 (28.2)	5 (7.0)	2 (2.8)	24 (33.8)	32 (45.1)	13 (18.3)	2 (2.8)	2 (2.8)	16 (22.5)	49 (69.0)
	$\chi^2=11.820$				$\chi^2=6.135$				$\chi^2=9.188$			
Type of Region	Seoul	7 (43.8)	7 (43.8)	0 (0.0)	2 (12.5)	6 (37.5)	6 (37.5)	1 (6.3)	3 (18.8)	2 (12.5)	2 (12.5)	10 (62.5)
	Gyeonggi	7 (46.7)	7 (46.7)	0 (0.0)	1 (6.7)	5 (33.3)	7 (46.7)	3 (20.0)	0 (0.0)	2 (13.3)	1 (6.7)	10 (66.7)
Region	Metropolitan city	17 (60.7)	10 (35.7)	0 (0.0)	1 (3.6)	7 (25.0)	14 (50.0)	6 (21.4)	1 (3.6)	4 (14.3)	4 (14.3)	18 (64.3)
	Jeolla	10 (58.8)	4 (23.5)	2 (11.8)	1 (5.9)	6 (35.3)	6 (35.3)	4 (23.5)	1 (5.9)	0 (0.0)	5 (29.4)	10 (58.8)
Type of Region	Gyeongsang	22 (64.7)	9 (26.5)	3 (8.8)	0 (0.0)	11 (32.4)	18 (52.9)	5 (14.7)	0 (0.0)	1 (2.9)	7 (20.6)	25 (73.5)
	Gangwon	3 (37.5)	5 (62.5)	0 (0.0)	0 (0.0)	4 (50.0)	1 (12.5)	2 (25.0)	1 (12.5)	1 (12.5)	2 (25.0)	4 (50.0)
Region	Chungcheong	8 (72.7)	2 (18.2)	0 (0.0)	1 (9.1)	3 (27.3)	6 (54.5)	2 (18.2)	0 (0.0)	0 (0.0)	2 (18.2)	9 (81.8)
	Jejue	1 (100)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1 (100)
$\chi^2=29.051$				$\chi^2=28.584$				$\chi^2=18.336$				
Type of Region	Urban	59 (56.7)	35 (33.7)	4 (3.8)	6 (5.8)	34 (32.7)	47 (45.2)	18 (17.3)	5 (4.8)	8 (7.7)	19 (18.3)	69 (66.3)
	Urban-rural complex	16 (61.5)	9 (34.6)	1 (3.8)	0 (0.0)	8 (30.8)	12 (46.2)	5 (19.2)	1 (3.8)	2 (7.7)	4 (15.4)	18 (69.2)
$\chi^2=1.589$				$\chi^2=.322$				$\chi^2=1.195$				

Table 7. Needs of Family Programs based on the Family Life Cycle (Multiple Responses) (N=130)

	Family Program	Married Couple ~ Childbearing Families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Families with School Children	Families with Teenagers
		n(%)	n(%)	n(%)	n(%)
Couple's Marital Relationship	Couple's communication and problem solving	114 (87.7)	66 (50.8)	52 (40.0)	45 (34.6)
	Understanding sex	88 (67.7)	8 (6.2)	22 (16.9)	21 (16.2)
	Role balance	74 (56.9)	82 (63.1)	56 (43.1)	41 (31.5)
Parent-Child	Increased intimacy for the couple	103 (79.2)	61 (46.9)	51 (39.2)	46 (35.4)
	Communication and problem solving between parent and child	62 (47.7)	61 (46.9)	59 (45.4)	57 (43.8)
	Father's involvement in parenting	72 (55.4)	87 (66.9)	83 (63.8)	57 (43.8)
Family of Origin	Child's career guidance	10 (7.7)	44 (33.8)	86 (66.2)	95 (73.1)
	Understanding child's developmental stage	87 (66.9)	97 (74.6)	63 (48.5)	51 (39.2)
	Understanding child's school life	22 (16.9)	65 (50.0)	99 (76.2)	74 (56.9)
Cultural Understanding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immigrant woman and husband's families	95 (73.1)	51 (39.2)	36 (27.7)	26 (20.0)
	Differentiation from family of origin	74 (56.9)	46 (35.4)	32 (24.6)	20 (15.4)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s families	60 (46.2)	46 (35.4)	29 (22.3)	19 (14.6)
Family Resource Management	Understanding the culture and language of partner	113 (86.9)	38 (29.2)	25 (19.2)	15 (11.5)
	Husband's family's understanding of the married immigrant woman's culture	90 (69.2)	40 (30.8)	32 (24.6)	28 (21.5)
	Multicultural awareness	71 (54.6)	56 (43.1)	40 (30.8)	30 (23.1)
Community Participation	Finding strengths of multicultural families	38 (29.2)	73 (56.2)	81 (62.3)	71 (54.6)
	Set goals for life	39 (30.0)	68 (52.3)	74 (56.9)	61 (46.9)
	Financial management	35 (26.9)	73 (56.2)	69 (53.1)	59 (45.4)
	Leisure management	20 (15.4)	65 (50.0)	72 (55.4)	65 (50.0)
	Understanding partner's life cycle and developmental task	37 (28.5)	60 (46.2)	48 (36.9)	54 (41.5)
	Community activity(voluntary service, etc)	23 (17.7)	43 (33.1)	81 (62.3)	89 (68.5)
	Partnership with community (Participation in school, parent meeting, etc)	42 (32.3)	72 (55.4)	102 (78.5)	100 (76.9)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항목에서는 세부 지역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역 유형별 다문화 가족영역 사업 운영에 대한 인식은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행정구역별 세부 지역별 '가족단위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의 차이가 도시형과 도농복합형인

지역 유형의 차이와는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세부 내용은 <Table 4>와 같다.

2.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필요도 인식

1)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의 대상자별 필요도

가족영역 종사자가 인식하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할 대상자별 필요도에서 1순위는 부부 대상, 2순위는 부모-자녀 대상, 3순위는 고부 대상, 이하 기타(자녀 지원, 결혼이민여성 취업 프로그램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은 <Table 5>와 같다.

근무년차 별 종사자의 인식에서도 전체 인식 순위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근무년차 별 인식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지역에 따른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의 대상자별 필요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행정구역별과 행정 구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의 대상자별 필요도는 전체 인식과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구역의 세부 지역별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의 대상자별 필요도 또한 전체 인식 순위와 동일하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지역 유형별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의 대상자별 필요도 또한 전체 필요도 인식과 동일하게 1순위는 부부 대상, 2순위는 부모-자녀 대상, 3순위는 고부 대상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 유형별 대상자에 따른 필요도 우선순위 인식의 차이는 없었다. 이는 도시와 도농복합형 센터 모두 부부 대상 지원이 가장 중요하고 이어서 부모-자녀 대상과 고부 대상 지원으로 가족영역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부 내용은 <Table 6>과 같다.

2) 가족생활주기별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필요도

가족영역 종사자가 인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대상 가족생활주기별 프로그램 필요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영역 사업을 재구성하여 총 6개 영역인 부부관계, 부모-자녀, 원가족관계, 문화이해, 가정경영, 지역사회 참여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가족영역 종사자는 다문화가족 대상 가족생활주기별로 지원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Table 7> 참조).

가족생활주기별로 가족영역 종사자 과반 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결혼 ~ 첫 자녀가 영아기인 가족의 경우, 부부관계 영역 프로그램 대부분이 필요하고 부모-자녀 영역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 교육과 자녀 발달 단계 이해 프로

그램이, 원가족관계 영역에서는 결혼이민여성과 시가구성원과의 관계와 원가족과의 긍정적인 문화 프로그램이, 문화이해 영역에서는 배우자 나라 및 문화 이해와 시가구성원의 결혼이민자 문화 이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외 가정경영 영역과 지역사회참여 영역에 대한 필요도는 다소 낮았다.

첫 자녀가 유아기인 가족의 경우, 부부관계 영역에서 부부 의사소통 및 부부 역할 조화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영역에서는 아버지 양육 참여와 자녀 발달 단계 이해 및 자녀 학교생활 지도 프로그램이, 문화 이해 영역에서는 다문화 강점 찾기 프로그램이, 가정경영 영역에서는 생애목표설계와 재무관리 및 여가관리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참여 영역에서는 지역사회관계맺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외 원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필요도는 다소 낮았다.

첫 자녀가 아동기인 가족의 경우, 부모-자녀 영역의 아버지 양육 참여와 자녀 진로 지도 및 자녀 학교생활 이해 프로그램이, 문화이해 영역은 다문화 강점 찾기 프로그램이, 가정경영 영역은 생애목표설계와 재무관리 및 여가관리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참여 영역은 지역사회활동과 지역사회관계맺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외 부부관계 영역과 원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필요도는 다소 낮았다.

첫 자녀가 청소년기 이상인 가족의 경우에는 부모-자녀 영역에서 자녀 진로 지도와 자녀 학교생활 이해 프로그램이, 문화이해 영역은 다문화 강점 찾기 프로그램이, 가정경영 영역은 여가관리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참여 영역은 지역사회활동과 지역사회관계맺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외 부부관계 영역, 원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필요도는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V. 결론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살아있는’ 이주자들이 생활세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슨 지원과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점으로,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 기관이며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장이다(H. Kim, 2015).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은 결혼이주여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다문화가족 정책의 현실적 실효성을 발휘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서 실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종

사자의 전문성에 주목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가족영역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가족생활주기별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필요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영역 종사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해야할 대상으로 결혼이민자가족을 가장 우선시 하였고 이어서 과반 수 이상이 외국인근로자가족과 새터민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유학생가족에 대한 인식 수준도 낮지 않았다. 이는 가족영역 종사자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복지 서비스 정체성을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기타 외국인가족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행정구역별로는 경기지역이 타 지역 대비 외국인근로자가족, 새터민가족, 유학생가족 거주 비율이 높은 만큼, 이를 대상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 유형별로는 도농복합형이 도시형보다 새터민가족에 대한 지원 인식이 높았다.

다문화정책 서비스에서 대상범위의 확대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였다. 이주유형의 다양화에 따라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난민, 외국인자녀, 재외동포가족 등이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들이 정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H. Jung, M. Jang, K. Park, & H. Kim, 2014). 현재의 다문화정책은 기존의 정책이 결혼이민자가족에게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가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대상을 법정 지정 대상에서 중도 입국 자녀,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친인척 등으로 확대 명시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4). 종사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을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나 새터민가족을 포함해 폭넓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이를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성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궁극적 목적이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로의 통합이라고 할 때, 다문화가족정책은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을 넘어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는 사업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문화 가족영역 사업 운영과 관련된 인식에서 가족영역 종사는 결혼이민자 적응을 위한 개별 대상 지원보다 현행 다문화정책에 부응하는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한 사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결혼이주여

성의 유입 역사가 길어지면서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이 가족형성기에서 자녀출산·양육기로 진행되면서 이들의 가족형태가 부부중심의 가족구조에서 2세대 핵가족과 3세대 확대가족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다문화 가족정책에는 가족생활주기별 가족관계 정립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H. Jung, M. Jang, K. Park, & H. Kim, 2014; Y. Kim, 20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은 결혼이주여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만나는 정책 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의 적응보다는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한 사업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이 ‘전체로서의 가족’이라는 가족체계 본질에 주목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은 가족 성원을 단순히 합쳐놓은 것 이상의 것으로, 가족을 이해할 때는 가족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가족구성원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지위, 즉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도출되는 딸이라는 지위는 결혼을 통한 생식가족 속에서 도출되는 아내, 어머니, 며느리 등의 가족지위와의 역할갈등이 많으며, 이러한 역할긴장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한 사업은 결혼이주 정착 초기단계 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는 가족영역 사업 수행에 있어서 사업비 부족, 가족단위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 매뉴얼 부족, 업무량 과다로 인한 가족사업 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사업비 부족에 대한 인식은 근무 년차가 많을수록 인식 수준이 높았다. 가족단위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은 행정구역별로 서울·경기와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 중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가 높았다.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에 있어서 지역 유형 특성인 도시형과 도농복합형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내부적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영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가족영역 사업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비 충당 및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한 가족 사업 운영을 지원하되, 지역의 내부적 상황을 감안한 가족단위 대상자 모집의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의 대상자별 필요도는 1순위는 부부 대상, 2순위는 부모-자녀 대상, 3순위는 고부 대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상자별 필요도 인식은 종사자의 근무 년차, 행정구역별, 행정구역의 세부 지역별의 차이와 무관하게 모두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가족영역 사업 종사자가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다문

화가족의 프로그램은 양질의 부부 관계 확립을 최우선으로 한다. 오늘날 가족관계에서 부부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부부관계 향상은 부부관계 뿐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등 가족 전체의 관계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J. Lee, 2006). 또 종사자들은 부부 대상 프로그램에 이어서 자녀 양육에 따른 부모 교육 및 부모-자녀 소통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결혼이민자와 시댁구성원과의 관계 지원을 필요로 있다고 보고 있다. 가족은 상호 관계적 구성 체이면서 유기적이므로, 어느 하나의 관계만을 위한 지원은 불충분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 과도한 경쟁을 막고 센터별 차별화를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적합한 프로그램 모색이 필요하므로(S. Kim & S. Hong, 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영역 사업 수행 시 부부관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되며, 가족생활 주기별 부모-자녀관계, 고부관계 지원의 체계적 사업 편성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가족영역 종사자가 인식하는 다문화가족 가족 활주기별 프로그램 인식은 가족생활주기 단계별로 영역별 필요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 영역과 원가족관계 영역은 초기단계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부부관계 영역은 자녀가 유아기인 가족일 때, 원가족관계 영역은 자녀가 영아기인 가족일 때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이해 영역도 초기단계에 매우 필요하지만 세부 내용인 다문화강점 찾기는 전 단계에 걸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자녀 영역은 단계별 자녀 성장에 따라서 필요도가 달라지는데,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청소년기 자녀 이전 가족까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자녀 진로 지도와 자녀 학교생활 이해는 자녀가 성장 할수록 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녀 발달 단계 이해는 자녀가 영유아기인 가족일 때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정경영 영역과 지역사회참여 영역은 가족형성 초기 단계를 제외한 전 단계에 걸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필요도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을 가족생활주기별로 살펴보면, 먼저 종사자들은 결혼 ~ 첫자녀가 영아기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 이상의 단계보다 보다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단계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어가 미숙하고 가족생활에의 적응이 부족하여 가정경영과 지역사회참여 영역에의 필요도는 낮지만,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원가족관계, 문화이해관계 전 영역에서의 프로그램 필요도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부부관계를 비롯한 가족관계에 대한 프로그램 및 문화이해에 대한 적응의 승패를 이 단계로 생각하고 있을 만큼 많은 종사자들이 이 단계에서의 프로그램의 필요도

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첫 자녀가 유아기인 가족의 경우 종사자들은 부모-자녀 관계와 가정경영에의 프로그램 요구도를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이전 단계인 첫 자녀가 영아기인 자녀와 비교하여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 성장에 가정경영 능력 및 지역사회 참여 부분의 프로그램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첫 자녀가 유아기에 접어 들었다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적어도 3년 정도의 한국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건강한 다문화가족생활을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정경영자로서의 능력 및 지역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자녀가 아동기인 가족의 경우, 종사자들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프로그램 요구도를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전 단계에 이어 가정경영 및 지역사회 참여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모국에서의 학제가 한국과 다르므로 정보부족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 자녀 교육을 통한 어머니됨의 정체성은 한국 적응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E. Lee & M. Jun, 2014), 적극적인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하다. 종사자들은 결혼이주여성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이러한 측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진로, 학교생활에의 적응, 다문화강점 찾기를 통한 자녀의 자긍심 향상, 학부모 모임 참여 등의 지역사회와의 관계 맺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첫 자녀가 청소년기 이상의 가족인 경우, 이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진로지도 및 학교생활의 이해, 다문화 강점 찾기, 지역사회와의 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요청하고 있었다. 자녀의 진로지도나 학교생활에의 이해는 중고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게 당장 필요한 정보이므로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를 제외하고 지역사회참여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요구도가 다른 프로그램의 요구도 보다 높은데, 이는 종사자들이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하고, 가족구성원의 생활역량에 봉사활동 등을 통한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나 지역사회관계 맺기가 중요한 지지체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현재 개발된 다문화 가족영역 프로그램 내용과 비교해볼 때 가족생활주기 단계별 프로그램과 유사한 맥락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가족 영역 사업 종사자가 특정 단계별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 자녀 진로 지도, 자녀 학교생활 이해와 같은 프로그램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센터 내부적으로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첫 자녀가 영아기와 유아기 가족에게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부부관계 및 원가족관계 영역 지원을 위해서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각 단계별 심화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첫 자녀가 유아기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적극적인 지역사회참여 및 관계 맺기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가족과 다양한 유관기관 및 지역구성원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 사회 내 소속감과 통질적 집단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학부모 모임 참여와 정보 공유를 위한 사회적관계망 형성에 취약하므로(E. Lee & M. Jun, 20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구성원 연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영역 사업 종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영역 사업에 대한 인식과 가족생활주기별 필요도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다문화 가족 영역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 수립의 참조 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가족생활주기별 지원을 통해 가족발달에 따른 가족 욕구 및 갈등에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가족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데, 가족 사업에서 문제 예방적 접근 방식은 가족이 건강한 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종사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더불어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가족영역 사업에 대한 인식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과반 이 넘는 센터 종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상의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조사 대상을 가족사업담당자로 한정하여 조사의 내용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모든 종사자의 인식이라고 할 수 없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내용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이는 이 연구의 분명한 한계이며 향후 이를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 프로그램에 관한 종사자의 인식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관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후속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여 이용자의 요구도 및 이용자와 종사자 요구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전달기관인 동시에 전국적 규모의 전달체계를 확립한 곳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의 파급력은 실로 크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평가를 관리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인식은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여성의 프로그램 요구도를 반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향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사업의 영역별 인식 및 필요도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 Bélanger, D., Lee, H., & Wang, H. (2008). Ethnic diversity and statistics in East Asia: 'Foreign brides' surveys in Taiwan and South Korea. *Ethnic and Racial Studies*, 33(6), 1108-1130.
- Chin, M., Lee, J., Lee, S., Son, S., & Sung, M. (2012). Family policy in South Korea: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1), 53-64.
- Chung, G., & Yoo, J. P. (2013). Using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nd adjustment among interethnic and interracial families in South Korea. *Family Relations*, 62(2), 241-253.
- Danuri (2015). *Report 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Seoul, Korea: Author.
- Harlow, K. S., & Turner, M. J. (1993). State units and convergence models: Needs assessment revisited. *The Gerontologist*, 33(2), 190-199.
- Hong, S. H., & Kim, S. S. (2009).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Female Marital Immigrant Families. *The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3(1), 119-146.
- Hwang, M. (2015).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competence and service quality of the human resources about multicultural agency - Focusing o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in Seoul city and GyeongGi Do -.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5(2).115-146.
- Joo, E. S., & Lee, H. J. (2010).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xperiences of multicultural counselors working with internationally-married female migrants.

-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9(4), 817-846.
- Jun, M., Son, S., Lee, E., Lee, Y., Kim, J., & Kim, M. (2015). *Program manual for multicultural families*. Seoul: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 Jung, H., Jang, M., Park, K., & Kim, H. (2014). Extension of target popul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for social integration. *Institute for Gender and Law Ewha Womans University*, 6(2), 197-217.
- Jung, S. K. (2011). *Effect of workers' job satisfaction on service quality i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S. A., & Park, J. Y. (2015). A study on job satisfaction and relevant variables in employee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Focused home-visiting educator.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4), 405-414.
- Kim, H. (2015. 3) *New paradigm and alternatives of policies on multiucultural families in Korea*. Associ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Seoul.
- Kim, H. S., Lee, H. Y., Park, S. M., & Im, H. (2012). A study on developing Job training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s employee by Delphi Survey.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1(1), 155-175.
- Kim, K. H. (2014). Policies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the related variables: A focus on the perception of the professional staff members working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s Center. *Family and Culture*, 26(4), 166-188.
- Kim, S.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ism and job attitude of workers working at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Focusing on mediation effects of empowerment and self-effic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Gwanju, Korea.
- Kim, S., & Hong, S. H. (2010). Evaluations over operating projects and it'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pecialists i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The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2), 35-88.
- Kim, Y. (2011). Multicultural aspects of family change and policy implication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75, 45-62.
-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2002). *Family theories*. Seoul: Komunsa.
-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015). *2015 Guide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Seoul, Korea: Author.
-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015). *2015 Report on Danuri call center*. Seoul, Korea: Author.
- Korea Migrant Human Rights Center. (2005). *Future of foreign labor movement and solidarity*. SEOUL: Solidarity for Human Rights of Foreign Laborers.
- Lee, E. J. (2015). *A study on family values of Vietnamese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Lee, E. J., & Jun, M. (2014). A study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s 'adaptation experiences', with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their home countr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5), 63-86.
- Lee, J.-M. (2006). Development and effect verification of 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conjugal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Korea.
-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8). *Life cycle-based tailored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Seoul, Korea: Author.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2016 Guide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Seoul, Korea: Author.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Life cycle-based tailored service inform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Seoul, Korea: Author.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 *Master plan for policies on multicultural family 2013-2017*. Seoul, Korea: Author.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6). *Report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s families*. Seoul, Korea: Author.
- Ministry of the Interior. (2015). *Report on foreign residents*. Seoul, Korea: Author.
- Ministry of Unification. (2015). *Resident popul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t regional level*. Sejong, Korea: Author.
- Mok, H.-S. (2012).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workers' service quality - Focused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
- Park, P., & Kim, J. (2013). Grounded theory approach for analyz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Moder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3(3), 155-178.
- Park, Y. (2009). The study on multi-culture support service at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Journal of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7, 31-62.
- Sse, J. (2014). The influence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and workers characteristics of family service organization on its business performa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 Seol, D. (2010).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policies on multicultural families. *Welfare Trends Monthly Report*. 138, 13-17.
- Shim, I., & Nam, Y. (2015). Impact of multicultural policy delivery systems and multicultural competence on the outcome of multicultural policy. *National Policy Research*. 29(1), 53-78.
- Son, K. (2010). A human resources study on women immigrated through marriage and how to improve their employment. *The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1), 19-36.
- Song, Y.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ttitudes, multicultural competence and service quality of multicultural centers' work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Christian University, Seoul, Korea.
- Yang, K. (2015). *Future of policies on multicultural families: Life, relationship, solidarity*. 18th Forum of Multicultural Familie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Seoul.

- Received: March 15. 2016
 Revised: June 2. 2016
 Accepted: June 13. 2016